

전북대 김동은·강예진 학생 대한민국인재상 수상

다수 특허 취득 발명 인재... 국제 디자인에서 두각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는 김동은(법전원 1년)·강예진 학생(산업디자인 4년)이 2018년 대한민국인재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수상자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과 250만원의 상금, 리더십 함양을 위한 연수 기회가 부여된다.

김동은 학생은 대만국제발명전시

회 동상, 이탈리아발명협회 특별상 등 4개의 국제상과 다수의 특허 취득을 가지고 있는 발명 인재다. 제1회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경진대회 대상(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대한민국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정보·컴퓨터)을 취득하는 등 IT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냈다.

또한 비트코인 환율 투자입문서라는 블록체인 서적을 집필하는 등 인문학적 소양 또한 뛰어나 이런 융·복합적인 면모가 인재상 수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강예진 김동은

전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동은 씨는 향후 IT 지식재산권법에 특화된 전문 법조인의 길을 계획하고 있다.

김 씨는 "이렇게 큰 상을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공동체

를 위한 변화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예진 학생은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인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과 세계 4대 디자인 공모전인 spark design awards 에서 창의적인 작품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핀업, 동부대우전자 등 국내 공모전에서 다수 수상하고 2개의 디자인권을 취득했다. 또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필립스, 상해 시그니파이와 글로벌 산학협력프로젝트, i-caps 프로젝트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가 지난 1일 전주 리원호텔에서 도내 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11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꿈을 꿀 시간조차 없는 아이들을 위해”

전주대 학부모 아카데미 성황

전주대는 지난 1일 전주 리원호텔에서 도내 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11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7월에 열린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에 이어 2번째 행사로 학부모에게 자녀의 올바른 양육법과 진학 및 적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윤기영 총암고등학교 교사(EBS 전속강사)와 '호통판사'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등 저자)를 초청해 대입전형 및 수능성적의 이해, 학생 부위주 전형의 안내와 자녀교육을 위

한 구체적인 방법을 교육했다.

천종호 부장판사는 "무한경쟁과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려 꿈을 꿀 시간조차 없는 아이들을 위해 가족관계 회복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청소년은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이기에 함께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빠르게 변화하는 입시정책에서 혼란을 느껴왔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교육은 자녀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자녀가 적성과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고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주대는 2017년부터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가 남원 컨싱턴 리조트에서 '2018 플레이&아이디어-톤 캠프'를 개최했다.

전주대, 단기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프로그램 '플레이&아이디어-톤 캠프' 개최

전주대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는 남원 컨싱턴 리조트에서 '2018 플레이&아이디어-톤 캠프'를 개최했다.

'아이디어-톤'이란 아이디어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짧은 시간동안 단기간에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기획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학

생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미니 창업 경진대회에서는 정윤석, 김찬영(영화방송학과 3년), 김하늘, 박효영, 김현아(산업디자인학과 1년) 학생 팀이 'Clean Cock(마이크커버)' 아이템으로 대상을 받았다. Clean Cock

은 손을 사용하지 않고 마이크 커버를 빠르게 씌울 수 있는 제품이다. 최우수상은 '상담기관 홍보 및 예약 서비스' 아이템을 개발한 박정환, 김경단(상담심리학과3년), 김병영, 이민주(경영학과 1년) 학생 팀이, 우수상은 '반려동물 맞춤 수제간식' 아이템으로 황채원(영미언어문화학과 3년), 정

민석(금융보험학과 2년)학생 팀이 수상했다. 김기정 센터장은 "학생들이 새로운 창업아이템을 발표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음을 느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창업교육을 지원한다면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브랜드 가치 창출 우수 성과자 포상

참스승상에 김학용 교수 등 시상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2018 전북대 갈채상 수상자를 선정, 3일 진수당 개인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2015년 교수와 직원, 학생, 우수 부서, 동문, 시민 등을 아우르는 '전북대 갈채상'을 신설해 대학발전

에 공헌한 이들을 대규모로 격려하고 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참 스승상'에는 올 한 해 연구와 교육에 큰 업적을 남긴 김학용 교수(BIN융합공학과)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연구와 수업, 산학협력, 저술, 봉사, 취업 등에서 모두 28명이 수상

했다.

또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참 직원상'에는 시설관리과와 교무과 박종화 팀장이 우수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로 각각 단체와 개인 부문 대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16명의 직원이 혁신과 경쟁력, 서비스 분야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모험과 소통, 창의, 인성, 실무, 문화 등 6대 역량 부문에 최우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주는 '천년 웅

비상'에는 양중은 학생(상대 경영학과)이 대상을 받았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주는 '전북대 세계인상'에는 아마르(국제학부·몽골유학생)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우수 학과상 대상에는 공대 교분자심유나노공학부, 성과관리와 만족도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한스타일캠퍼스조성본부 등 11개 부서가 우수 부서상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주송 교수, 대한민국 한류대상 수상

전통공예 소재·기법 적용

전통문화 산업화 공로

전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주송 교수가 '2018 제8회 대한민국 한류대상' 문화산업분야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한류대상은 한 해 동안 한류문화 혹은 한류산업과 관련해 두드러진 활동으로 한류 발전에 기여했거나, 한류의 대내외 확산에 역할을 해 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심사위원들은 주송 교수의 전통문화 화를 기반으로 한국형 문화콘텐츠산업을 디자인해 온 업적을 높게 평가



해 문화산업분야 대상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주송 교수는 2006년 전주대에 부임하여 제품디자인전공을 신설하고 한국적 전통생활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디자인 방법 연구 및 교육을 꾸준히 추진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기업으로부터의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2017년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Made in Korea' 예술감독 등을 역임하였고 전통공예 소재와 기법을 적용한 디자인으로 현대자동차 제너시스, 기아자동차 K9 등의 실내디자인의 고급화를 추진하는 등 전통문화 기반의 다양한 실험적인 작품 시도로 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상식은 이달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